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음악과 출제 문항 분석 연구
-2005년부터 2010년 국악 문항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재 연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음악과 출제 문항 분석 연구

-2005년부터 2010년 국악 문항 중심으로-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재 연

인 준 서

김재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임용고사 국악 문항 분석을 통하여 국악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국악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태 조사하고, 악곡 출처를 밝힘으로써 이에 걸맞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연도별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의 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전 공고한 교과교육학 영역 30%~35%, 교과내용학 영역 65~70%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사전 공고한 비율을 유지하며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 문항 비율은 38.8~50%를 차지하였고, 평균 42.5%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국악이론 영역의 비율은 서양이론 영역의 비율과 동등하게 출제되어 국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에 의해 분석한 국악 문항 유형의 결과 점차적으로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며, 단순지식 또는 기억을 묻는 문항은 지향하고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관 되어진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 문항 유형은 계속 발전하여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출제된 국악 문항 내용은 ‘이론’ 영역에 비해 ‘국악사’, ‘악기’ 영역은 적은 빈도수를 차지하여 영역 별로 균형 있게 출제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 영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악 문항은 최근으로 올수록 실제 현장 중심의 수업과 연계된 문항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교육적 흐름에 맞추어 문항 출제 유

형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성 있는 문항을 계속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출제 문항의 악곡 출처 분석 결과,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악 서적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국악 서적의 광범위한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며, 예비교사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항 출제가 확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 임용고사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문제점을 찾아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리	5
4.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7
1. 교원의 양성 및 임용제도	7
1) 교원 양성의 유형	7
2) 현행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	9
2. 현행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 전형	10
1) 2010년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제도	11
2) 2010년 중등 음악과 지역별 실기시험 유형	12
3.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 방법	18
1. 연구 대상	18
2. 자료 수집 방법	20
3. 연구 방법 및 절차	20
4. 국악 문항 분석기준	2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6
1. 음악과 연도별 문향 비율(배점) 분석	26
1) 영역 간 문향 비율(배점)분석	26
2) 국악 문향 비율(배점) 분석	28
2. 연도별 국악 문향 유형 분석	29
3. 연도별 국악 문향 내용 분석	31
4. 연도별 국악 문향 세부항목 분석	38
5. 연도별 국악 곡 교과서 및 국악 서적 출처 분석	51
V. 결론 및 제언	59
1. 결론	59
2. 제언 및 후속 연구	6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2009년 중등교원양성기관 현황.....	9
<표 II-2>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내용.....	12
<표 II-3> 2010학년도 각 시·도 교육청별 실기시험 유형.....	13
<표 III-1> 2005~2010년도 국악 출제 문항.....	18
<표 III-2>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국악 서적.....	18
<표 III-3>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 기초이론 강의내용.....	23
<표 III-4>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 곡 강의내용.....	23
<표 III-5>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사 강의내용.....	24
<표 III-6> 국악 문항 분석기준	25
<표 IV-1>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 분석.....	26
<표 IV-2> 국악 문항 비율(배점) 분석.....	28
<표 IV-3> 연도별 국악 문항 유형 분석.....	30
<표 IV-4> 연도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31
<표 IV-5> 2005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3
<표 IV-6> 2006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4
<표 IV-7> 2007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4
<표 IV-8> 2008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5
<표 IV-9> 2009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6
<표 IV-10> 2010년 국악문항 내용 분석.....	37
<표 IV-11> 2005년도~2010년도 임용고사 국악 문항 세부항목 분석.....	38

그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국악 문항 비율(배점) 분석.....	29
<그림 2> 연도별 국악 문항 유형 분석.....	31
<그림 3> 연도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인들은 미래의 사회를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사회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대처하며,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보다 전문적인 교사양성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교육학적 측면에서 교사양성과 관련하여 늘 되풀이 되는 말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시사하듯이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사를 통해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있으며,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이다.

‘교원’은 명백히 교육력 향상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으며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개발·보급되고, 최상의 교육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질이 낮다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다.¹⁾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고 있으며, 교육 주체의 강조점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교사의 자질이 중요시 되고 이에 따른 교사 교육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의 두 주체를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고 그 상호관계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 개혁 방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 붕괴와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질의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석문주. 2000년을 향한 중등 음악교사 교육프로그램. 음악과 민족 제 9호. 1995. p.278.

이렇듯 교원 임용고사²⁾는 미래 교육의 질을 결정하며 교사에 대한 정책을 반영하게 되므로, 우수교원을 뽑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학교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교원양성과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우수한 교사 임용의 선발은 미완성된 청소년들을 개성과 자질에 맞게 우수한 인력으로 계발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의 한 몫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첫 걸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등 임용고사 선발은 더 이상 부족한 인원 보충의 개념이 아닌, 지적 능력과 정의적 사고를 두루 갖춘 자를 선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매년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능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시행하며, 전국의 각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서 교직을 이수하여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양성체제를 보면 특히 음악 교과목의 경우, 교직 희망자에 반해 뽑는 인원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과 2010년도의 서울 지역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13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응시자는 178명으로 14:1의 경쟁률이었던 것에 반해 2010년에는 1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무려 237:1이라는 교과목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의 음악 시수 축소와 교원 감축의 영향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음악의 쇠퇴로 까지 이어질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매 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교직 희망자의 많은 인원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낼 교사의 선발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895년 최초의 교원 양성 기관인 한성사범학교³⁾가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제도와 정책의 끊임없는 변천을 겪으면서 우수하고 유능한

2)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이하 임용고사)

3)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으로, 2년제 정규과정(본과 100명)과 6개월 단기과정(예과 6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한국교육삼십년편찬위원회, 1980:169).

교사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991년 국·공립사범대학교와 교원대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선다형 시험의 공개전형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1991년 교원 임용고사를 통한 공개 전형 방식의 도입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⁴⁾는 교직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임용시험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선택형 필기시험의 1차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2차, 그리고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의 3차의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음악 교과목의 국악 영역의 경우, 교육과정이 거듭 바뀌면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내용의 구체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악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체계화, 상세화 시켜 비중을 더욱 확대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국악 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많은 국악 전문가들이 국악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며, 1990년도 이후 교과과정에서 국악의 비중이 30~40%이상으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국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자 한 연구 결과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⁶⁾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전통문화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면서 대중매체의 사극 열풍을 비롯하여 음악에서도 대중가요의 국악기 접목, 퓨전 국악의 활성화는 전통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한 예이기도 하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로 도래함에 따라 문화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국악은 국가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⁷⁾

이를 미루어보아 국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임용고사를 통하여 국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음악 즉,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국

4)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 선발체제 개선을 위한 임용시험규칙 개정계획(안). 2007.

- 2008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전환되었다.

5)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7. p.11.

6) 권덕원. 국악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연구. vol.30. 2006. p.6.

7) 변미혜.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음악교육연구. vol.21. No.4. 2006. p.143.

악의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악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용고사의 국악 문항 분석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고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행 연구된 음악과 임용고사 분석 경향을 보면, 홍정아⁸⁾는 시행 초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중등 음악 임용고사 시험 유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고, 이은실⁹⁾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시된 중등 음악 임용고사를 중심으로 연도별, 내용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 중등 음악 임용고사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전반적인 흐름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혹은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의 전체 문항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드물어 좀 더 심도 있는 문항 분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좀 더 밀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국악이론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음악과 임용고사 배점이 80점으로 전환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악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태 조사하고, 교과서와 국악 서적 간의 출제 문항 악곡 출처를 밝힘으로써 국악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에 걸맞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8) 홍정아. 음악과 임용고사 출제 경향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9) 이은실. 중등교원을 위한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된 음악과 임용고사 영역 별 문항 수와 비율(배점)은 균형 있게 출제 되었는가?

둘째, 국악 문항의 비율(배점), 문항 수는 고르게 분포 되었는가?

셋째,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에 의한 문항 유형은 어떠한가?

넷째, 국악 문항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한 영역에만 편중된 것은 아닌가?

다섯째, 국악 문항의 세부 항목별 내용은 무엇이며 출제 경향은 어떠한가?

여섯째, 교과서와 국악 서적의 악곡 출처는 어떠하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용어 정리

본 연구에서 국악 문항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교과내용학 중 국악이론 영역만이 아닌,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서양이론, 국악이론 중에서 국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항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문항을 뜻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첫째, 음악과 임용고사 전공 배점은 2005년부터 80점으로 전환되어, 현재

까지 동일한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문항 비율(배점) 분석과 경향성 분석에 용이하도록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둘째,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위한 국악 문항 분석기준¹⁰⁾은 서한범의 「국악통론」의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하며,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국악총론」, 「알기쉬운 국악개론」, 「한민족음악론」, 「국악통론」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다.

10) 국악 문항의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위한 영역별 분류기준은 2005년도~2010년도 출제된 국악 문항의 전반적인 출제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되, 남수진의 연구와 국악 서적을 비교·참고, 서한범의 국악통론의 내용구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영역별 분류 선정한 준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pp.21~25에 기술되어 있으며, 분석 기준표는 본 논문 p.25에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의 성패는 교원의 질에 좌우된다. 교원 임용제도는 교육 활동에 필수적인 요인인 능력 있는 교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선발·채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승진시키는 교육인사행정의 핵심에 해당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양성이란 측면에서 교직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지기 위해서 자격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절차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발급을 통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인 공신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교사 양성의 유형 및 현행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교육 인사행정의 일환인 현행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 전형에 대해 알아보며 본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교원의 양성 및 임용제도

1) 교원 양성의 유형¹¹⁾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구비해야 하며, 사회와 인간에 대한 특별한 식견과 태도를 두루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양성교육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교육전문가임을 공인하는 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교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크게 목적형, 개방형, 혼합형(절충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

11)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201.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형이 있다. 목적형은 목적 대학형이라고도 하며, 교사 양성이라는 단일한 목적에 비추어 오직 특정대학에만 교사의 양성을 국한 시키는 폐쇄적 체제를 말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사의 질 관리를 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과 임용관리를 할 수 있어 교사 수급을 효과적으로 조절, 예비교사들의 현장 적응능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방식으로 인해 국가적 통제에 의한 획일성 문제를 피하기 어렵고, 현대사회와 같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능력과 창의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인 개방형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력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사양성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을 개방형이라 하며, 일반 대학형이라고도 한다. 교사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완전 개방적 접근을 말한다. 이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개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학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교사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손쉽게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직에 대한 목적의식의 결여와 전문성이 경시되었다는 점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형과 개방형 방식을 혼합하거나 절충하여 교사를 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은 혼합형 혹은 절충형 유형, 전문직형이라고도 한다. 목적제와 개방제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교사 양성을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성을 가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함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등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의 양성 방식은 목적형이라고 할 수 있고,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 방식은 목적형과 개방형을 혼용하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반면, 중등교사의 경우는 오히려 교사 교육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한다는 입장을 지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행 중등교원 양성기관 현황¹²⁾

중등교원의 양성은 크게 사범계 양성기관과 비사범계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중등교원의 양성이 주요 목적인 사범계 양성기관에는 일반대학내의 사범대학과 교육과가 포함되며, 비사범계 양성기관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산업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중등교원이 양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등교원은 사범계 42개교의 사범대학과 59개교의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이루어져 있고, 비사범계 일반대학 교직과정 158개교 대학과, 134개교의 교육대학원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양성 연수과에서 제시한 「2009 교원양성기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현황을 정리한 것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2009년 중등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원 양성기관 총괄
2009.3현재

12)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 교원 양성 연수과. 2009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구분 과정별			설립별	기관수	학 년 별 정 원				비 고
					09 학년도	08 학년도	07 학년도	06 학년도	
중 등 학 교 교 사	사 범 대 학	국 립	14	4,131	4,153	4,169	4,247	16,700	
		사 립	28	6,817	6,817	6,817	6,892	27,343	
		소 계	42	10,948	10,970	10,986	11,139	44,043	
	일 반 대 학 교 육 과	국 립	6	280	280	280	240	1,080	
		사 립	53	3,305	3,290	3,290	3,290	13,175	
		소 계	59	3,585	3,570	3,570	3,530	14,255	
	계	국 립	20	4,411	4,433	4,449	4,487	17,780	
		사 립	81	10,122	10,107	10,107	10,182	40,518	
		합 계	101	14,533	14,540	14,556	14,669	58,298	
	중 등 학 교 교 사	일 반 대 학 교 직 과 정	국 립	33		4,023	6,153	6,268	
사 립			125		12,246	17,477	17,871	47,594	
소 계			158		16,269	23,630	24,139	64,038	
교 육 대 학 원		국 립	35	7,401	7,401	7,401	7,401	22,203	
		사 립	99	12,908	12,908	12,908	12,908	38,724	
		소 계	134	20,309	20,309	20,309	20,309	60,927	
계		국 립	68	7,401	11,424	11,424	13,554	28,471	
		사 립	224	12,908	25,154	25,154	30,385	56,595	
		합 계	292	20,309	36,578	36,578	43,939	85,066	

2. 현행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 전형

우수한 음악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좋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적격자에게 교사 자격을 주고,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정의 전형과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1991년 임용 자부터는 국·공립 중등교사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국·공립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임명하고 부분적으로 남는 자리만 사립 대학

교 또는 일반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순위고사를 치러 채용했기 때문에 교직의 문이 그만큼 좁았다.

그러나 1994년부터 국·공립 중등교사 임용고사는 국·사립을 막론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교사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사립 학교도 교사를 공채시험에 의거,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력에 의한 공정한 교사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악과 중등교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원 자격증을 받은 자¹³⁾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라도 국·공립 중등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으로는 선발교과 표시항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자이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응시가능하다.

응시자격 제한은 각 지역별 당해 연도 공고문에 공고되며, 주로 국가 공무원법 제33호(임용결격사유)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 할 수 없다. 중등 임용고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각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험공고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매 학년도 교사 수급계획에 따라 교사일시, 장소,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 제출 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일 20~30일 전에 공고한다.

1) 2010년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제도

중등 임용고사의 경우 해당 과목별로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차 논술과 면접·실기시험으로 되어 있던 기존 방식이 2009학년도부터

13) 초, 중등 교육법 제 21조, 교육공무원법 제 16조.

총 3차시로 바뀌었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 적성 심화·심층 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시험으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지식 이외에도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에 관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2010학년도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내용은 <표 II-2>와 같다.¹⁴⁾

<표 II-2>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내용

구분	과목	출제분야	배점
1차 전형	교육학 (객관식)	교육학 전 영역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 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20
	전공 (객관식)	교과교육학 30~35%,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 방법, 7차 교육과정총 론 및 각론에 포함하는 내용 교과내용학65~70%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과 학기술부고시 제 2000-1호 , 2000.1.28)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 및 기본이수분야 또는 분야"	80
2차 전형	논술	전공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 수행 능력	100
3차 전형	수업지도 안 작성	수업시연을 위한 학습지도안 작성	100
	면접 및 수업실기	교직적성, 교직원, 인격, 소양, 수업실기에 관한 능력평가: 면접과 병행	
	실기평가	교과교육에 필요한 실기	

2) 2010년 중등 음악과 지역별 실기시험 유형

14)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규칙.

음악과의 경우 교과목의 특성 상 필기시험 뿐 만 아니라 실기시험의 비중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실시 유형 면에서도 서양음악에서 국악의 범위까지 광범위 하며, 특히 국악실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백정연¹⁵⁾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지역별 실기 분석 결과 2001년도 국악실기시험이 16개 시·도 중 2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13개 지역까지 확대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국악 실기를 보는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기시험의 유형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 마다 매 해 공고 시 출제 영역이 바뀌어 출제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 되어있는 실기시험을 통해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3> 2010학년도 각 시·도 교육청별 실기시험 유형

지 역	선발인원	실 기
서 울	1	피아노 반주하며 가창, 장구장단과 민요창, 시창, 청음
경 기	7	피아노, 시창, 청음, 단소
대 진	4	피아노, 시창, 청음, 민요연주
대 구	6	피아노, 시창, 청음, 단소
전 북	2	청음 : 단선율(한도막형식) 가창 : 피아노반주하면서 노래 단소 : 연주곡목 자유 선택
광 주	2	시창, 청음, 가창, 범주범창, 장단 치면서 민요창
계	22	

<표 II-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시창과 청음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국악기의 실기 연주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백정연. 중등교원 음악과 임용고사 분석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p59~60.

실용 위주의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청음을 보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시창 곡은 창작곡을 초견 시창하거나, 조옮김하여 반주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피아노 연주 시 초견으로 반주하며 노래 부르거나 서울의 경우 장구장단을 치며 직접 민요를 부르는 등 각 지역별마다 실기유형이 다양한 형태의 실기시험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현재까지 중등 음악교사 임용고사에 관한 연구 및 문항 분석에 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주¹⁶⁾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통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로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시행된 음악과 기출문항 분석에 국악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2008년도에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통합문제를 통하여 학교수업에서 통합적 수업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또한 각 영역 간 문항이 비교적 고르게 출제되었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 또한 잘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안으로는 실기시험에 있어서도 국악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잘 익히고, 여러 영역 간의 통합 문항이 늘고 있는 만큼, 통합 문항에 대해 대비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음악교육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적인 문항이 좀 더 출제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16) 김영주.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이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 개정 7차 교육과정이라고 기술한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제한점이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김진아¹⁷⁾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등 음악 임용시험의 내용과 기출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파악하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로는 영역별 분석에서 음악교육학 출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국악 영역의 배점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문제 유형으로는 단답형 유형이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별 분석에 있어서는 문항 출제가 한 가지 내용에만 편중되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언한 내용으로는 먼저 각 영역의 세부 내용들이 다양하게 출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항 수를 늘리고 문항 배점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도와 같이 영역 간 통합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시험유형이나 내용, 패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영역별, 내용별, 문항별로 체계적으로 잘 분석되었으나, 4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손옥¹⁸⁾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최근 5년간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연도별, 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서울 시내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임용고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7) 김진아. 중등 음악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문항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8) 손옥. 음악과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연구 결과로는 내용별 문항 분석 결과 국악이론에서는 악곡과 음악사 출제에 편중되어 있고, 서양이론에서는 시대별로 나열하는 유형의 문항은 매해 출제되고 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전문성 평가의 적합성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음악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지식을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개선방향으로는 출제 영역과 내용에 있어서 특정 영역과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임용고사 분석에서 새롭게 교사 설문조사를 한 점은 다른 논문과 차별성이 있어 보이나, 김영주의 논문과 같이 제한점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김옥¹⁹⁾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임용고사 음악문항을 통해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영역이 반영되는 정도가 고르지 파악하고, 출제된 문항의 내용 균형유지 상태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교과교육학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국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제문항을 살펴보면 문제와 답이 단순한 문답형에서 질문의 길이가 복잡해지고 길어지면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언으로는 2005년 국악 반영 비율이 서양 음악보다 높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국악과 서양음악의 비율이 동등하게 출제되도록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용고사 출제 난이도에 있어서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는 출제 내용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임용고사 출제 경향은 실용 중심교육을 강조하고 있듯이 실용을 제시해 주는 감상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연구 결과 및 해석의

19) 김옥.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음악)의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2006.

부분에서 기술한 합격자 결정 및 사정원칙의 내용은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은실²⁰⁾은 2000년부터 2004년의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의 문항 분석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세부 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연도별 분석에서 출제 문항의 비율은 비교적 일관적인 출제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내용별 분석에서는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였고, 문항별 분석에서는 문항 내용이 골고루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내용구성이 체계적으로 잘 되었고, 특히 문항 분석에 앞서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내용구성을 이해하도록 쉽게 한 점이 잘 되었다. 그러나 연도별, 내용별의 내용에 비해 문항별 분석에 관한 내용이 다른 분석에 비해 다소 적은 점이 아쉬웠다.

이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중등 음악 임용고사에 대한 출제문항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국악 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악 문항만을 한정하여 좀 더 밀도 있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차별성 있고 심도 있는 연구가 되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20) 이은실, 중등교원을 위한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음악과 출제 문항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기출문제 자료실에서 국악 문항만을 추출한 것을 토대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2005~2010년도 국악 출제 문항

연도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연도별 전체 문항	국악 문항
2005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5	10
2006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5	12
2007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4	12
2008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20	8
2009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40	15
2010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40	16

둘째, 국악 문항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중학교 음악 교과서 1학년~3학년 9종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8종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교과서 외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국악 서적을 비교·참고하여 분석하며, 연구의 대상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국악 서적

중학교 교과서(출판사)	저자명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교학연구사	조창제	2008. 3. 1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2008. 3. 1
성안당	최필립, 김영재, 신금식, 유제향	2008. 3. 1
아침나라	윤경미, 문진	2008. 3. 1
지학사	윤명원, 김영희	2008. 3. 1
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2008. 3. 1
두산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008. 3. 1
동진음악출판사	김준수, 이동훈	2008. 3. 1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2008. 3. 1

고등학교 교과서(출판사)	저자명	교육인적자원부 검정
세광음악출판사	고춘선, 홍종건	2008. 3. 2
두산(주)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2008. 3. 2
대한교과서(주)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2008. 3. 2
도서출판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2008. 3. 2
현대음악출판사	윤경미, 문진	2008. 3. 2
(주)교학사	정영택, 허화병	2008. 3. 2
(주)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해, 홍기순, 김은하	2008. 3. 2
박영사	이강울, 주광식, 김금수, 황선	2008. 3. 2

국악 서적	저자명	출판사(출판연도)
국악통론	서한범	서울 : 태림출판사 (2007)
국악총론	장사훈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알기쉬운 국악개론	이성천, 권덕원, 백일형, 황현정	서울 : 도서출판 풍남 (2008)
고등학교 음악이론	신현남, 윤경미, 양현경, 구희연 공저	(주) 교학사 (2008)
고등학교 음악사	김대호, 김순옥, 신현남, 양재무, 정진행 공저	(주) 교학사 (2003)
중보 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 민속원 (2007)
한민족음악론	권오성	서울 : 학문사 (2000)
전통음악이론	반혜성	서울 : 도서출판 두남 (1999)
중보 한국음악개론	손태룡	서울 : 민속원 (2000)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두 분류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임용고사 및 국악 문항 수집 방법에 있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고, 각 시·도별 교육청의 공고문을 토대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문헌연구 고찰을 통한 분석 연구이므로, 기존의 선행 되어진 논문들을 참고로 하며 임용 관련 서적을 토대로 분석한다.

둘째, 교과서 및 국악 서적 수집방법에 있어서는 한국검정교과서 사이트를 통해 중학교 9종과 고등학교 8종 교과서를 구입하여 분석하고, 국악 문항 분석에 있어서는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에서 수업 되고 있는 주 교재를 참고하여 분석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된 음악과 임용고사의 영역 간 문항 수와 국악 문항을 연도별로 나눈 후 전체적인 문항 수와 비율(배점), 문항 유형이 균형 있게 출제되었는지 조사한다.

둘째, 국악 문항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영역별 세부 내용은 무엇이며, 어느 한 영역에만 편중된 것이 아닌지 알아본다.

셋째, 임용고사에 출제된 악곡의 출처를 교과서와 국악 서적을 통해 밝힘

으로써, 전반적인 국악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언 한다.

4. 국악 문항 분석기준

본 연구의 국악 문항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악 문항의 세부적인 내용분석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음악과 중등 임용고사 출제문항 내용과, 교육대학원의 강의내용, 국악 서적의 내용 구성을 참고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남수진²¹⁾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 교재를 비교·대조하여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 포함된 서한범의 국악통론에 초점을 두었으며,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분석기준의 틀을 정립하였다.

먼저, 남수진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국악교육과정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악 수업이 양질의 수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목적으로 두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총 12개의 교육대학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악이론의 분석 기준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하기 위하여 '국악이론'의 강의교재 및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²²⁾만을 포함하였다.

9개의 학교 중 6개의 학교가 「국악총론」²³⁾, 5개의 학교가 「국악통론」²⁴⁾, 3개의 학교가 「알기 쉬운 국악개론」²⁵⁾,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²⁶⁾, 2개의 학교가 「한민족음악론」²⁷⁾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21) 남수진.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국악교육과정의 실태 :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65~75.

22) 위 논문에 기술되어진 pp.65~75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3)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 세광출판사. 1985.

24)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2007.

25) 이성천 외. 「알기 쉬운 국악개론」. 서울 : 도서출판 풍남. 2008.

26) 송혜진.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2.

27) 권오성. 「한민족음악론」. 서울: 학문사. 1999.

타났다.

이렇듯 서울 소재 12개의 교육대학원 중 6개의 학교가 「국악총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책의 구성 내용은 이론편, 악기편, 감상편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이 책은 한국음악사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각 영역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악곡에 대한 설명이 다른 국악 서적에 비해 매우 세밀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부적인 문항을 분석하는데 용이하였다.

다음으로 「알기쉬운 국악개론」은 이론, 악곡, 악기, 역사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었으며, 이론영역에서 시김새와, 변조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서한범의 국악통론과 매우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비교·대조하며 분석 기준을 정하였다.

「한민족음악론」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의 내용으로는 한민족 음악의 개념, 한국음악사, 음률 및 선율론, 장단론, 악곡 형식과 연주방식, 기보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각론의 경우 음악의 구성으로 민간음악, 문인음악, 궁정음악, 종교음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악기 부분에서는 공기 진동악기와 현 진동악기, 몸울림 악기, 막울림 악기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서적들에 비해 다른 형태로 기술되어 있었으며, 시김새에 대한 언급은 따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음악사의 분류에 있어서 다른 책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기술되었으므로 한국음악사의 분석 시 이 책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란 책은 제목 그대로 이론적인 내용 구성보다는 국악감상 길잡이, 연주음반 찾아듣기, 노래음반 찾아듣기 등 국악을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책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는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있어서 초점을 둔 책인 「국악통론」은 기초악전, 악곡, 악기, 음악사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마다 다른 국악 서적보다 세밀하게 내용이 구성 되어져 있으며, 특히 다른 서적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김새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민속악과 관련된 내용이 정악부분의 내용구성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참고로, ‘국악이론’ 관련 과목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국악 기초 이론과 악기론, 국악 악곡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국악기초 이론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틀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 기초이론 강의내용

국악 기초이론	세부적 내용
율명	12율명, 양률, 음려, 중성, 청성, 탁성, 삼분손익법
우리나라의 악보 기보법	율자보, 국상자보, 공척보, 약자보, 육보, 합자보, 오음악보, 연음표, 정간보
음계와 선법	평조, 계면조, 민요의 음계
구성방식과 연주방식	환두·환입형식, 확대형식, 연음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국악형식과 종지형, 변조	종지형, 변조 종류
국악기 분류와 특징, 장단	장단 개념, 장구연주법, 여러 가지 장단종류, 여러 가지 유형(무패턴 불규칙형, 유패턴 불규칙형, 균등형)

국악 악곡의 강의내용의 갈래도 역시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 곡 강의내용

국악 곡	세부적 내용
제례악	문묘와 종묘제례악의 절차 및 음악 특징

풍류음악	영산회상, 가곡, 시조
종교음악	무악, 범패
민속악	판소리, 산조, 민요
창작음악	국악의 창작 시작과 발전단계, 현재 퓨전 국악 특징 이해

국악사 관련 과목의 강의 내용은 세 학교 모두 전체적인 한국 음악사의 흐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각 시대 구분은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국악사 강의내용

국악사	세부적 내용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음악	각 시대의 음악의 특징과 음악기관, 악곡
삼국시대의 한국음악	
통일신라시대의 한국음악	
고려시대의 한국음악	
조선시대 전기의 한국음악	
조선시대 후기의 한국음악	
근대, 현대의 한국음악	

그러므로 국악 문항 분석기준은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내용을 참고로 하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국악 서적들을 비교·대조하였다. 따라서 <표 III-6>은 서한범의 국악통론에 초점을 두고 절충된 분석 기준의 틀을 만들었으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제된 세부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밀도 있는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III-6> 국악 문항 분석기준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이론	악전	음조직, 기보법, 선법과 음계, 시김새
	형식	환두·환입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확대형식, 긴·자진형식, 율음형식, 메기고 받는 형식, 연음형식, 가곡, 시조형식, 모음곡 형식
	장단	정악장단, 민속악장단
악기	현악기	해금, 아쟁,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당비파, 금, 슬, 대쟁, 월금, 공후, 양금, 혼합
	관악기	대금, 중금, 소금, 당적, 지, 약, 적, 소, 통소, 단소, 나각, 나발, 훈, 생황, 태평소, 당피리, 세피리, 향피리, 혼합
	타악기	편종, 특종, 편경, 특경, 방향, 운라, 자바라, 징, 라, 대금, 팽과리, 박, 축, 어, 부, 장구, 갈고, 진고, 절고, 좌고, 소고, 용고, 교방고, 노고, 뇌고, 뇌도, 영고, 영도, 혼합
악곡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혼합, 경모궁제례악, 범패, 무악
	아악	영산회상,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도드리, 취타, 길군악, 길타령, 자진한잎, 정동방곡과 유흥곡, 정읍, 혼합
	가악	가곡, 가사, 시조, 혼합
	민속악	판소리, 산조, 잡가, 민요, 혼합
국악사	삼국시대 이전	상고시대, 변한시대, 진한시대
	삼국시대 음악	고구려, 백제, 신라음악
	통일신라 음악	향악의 발전, 음성서, 범패, 당악유입
	고려시대 음악	연등회, 팔관회, 아악, 당악, 향악, 고취악, 음악장관기관
	조선전기 음악	세종, 세조때 음악, 성종 때 음악, 연산이후 음악
	조선후기 음악	궁중음악 변화, 민간 음악 생성·발달, 보허자, 혼합
	근, 현대 음악	갑오경장 이후 음악, 일제강점기
	시대별 음악사	혼합
	역대 국악인	혼합
	창작 국악	혼합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출제 문항 분석에 앞서 기존 전공별 임용고사의 문제점 개선과 출제 문항의 타당성, 공정성 및 교직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임용시험 규칙이 개정되었다. 선택형 필기시험의 1차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2차, 그리고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의 3차의 단계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택형 5지선다형과, 전체 40 문항으로 이전에 비해 문항수가 늘어났다. 본 연구의 내용에 따른 결과 및 이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음악과 연도별 문항 비율(배점) 분석

1)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분석

음악과 임용고사 전공 배점은 2005년부터 80점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문항 비율(배점) 분석과 경향성 분석에 용이하도록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서양이론과 국악이론²⁸⁾,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연도별 각 영역의 문항수와 비율(배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 분석

연도별 분류	영역별 분류	영역별 문항 수	배점	비율(%)
--------	--------	----------	----	-------

28)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분석이므로, 여기서 의미하는 국악이론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서양이론)의 국악이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교과내용학의 국악이론 문항만을 의미한다.

2005	교과교육학		6	22	28
	교과내용학	서양	9	27	33.8
		국악	10	31	38.8
합 계			25	80	100
2006	교과교육학		8	28	35
	교과내용학	서양	9	26	32.5
		국악	8	26	32.5
합 계			25	80	100
2007	교과교육학		8	24	30
	교과내용학	서양	8	28	35
		국악	8	28	35
합 계			24	80	100
2008	교과교육학		7	29	36.2
	교과내용학	서양	6	24	30
		국악	7	27	33.8
합 계			20	80	100
2009	교과교육학		12	24	30
	교과내용학	서양	15	29.5	36.9
		국악	13	26.5	33.1
합 계			40	80	100
2010	교과교육학		12	24	30
	교과내용학	서양	15	30	37.5
		국악	13	26	32.5
합 계			40	80	100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의 서양이론, 국악이론은 평균적으로 교과교육학 영역은 31.5%, 교과내용학 영역은 68.6%를 나타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전 공고한 교과교육학 영역 30~35%, 교과내용학 영역 65~70%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의 경우 국악이론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선택형 5지선다로 바뀜에 따라 문항 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40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2) 국악 문항 비율(배점) 분석

음악과 임용고사 교과내용학(국악이론)의 출제 문항은 교과내용학(국악이론)외에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서양이론)과 통합되어진 내용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국악 문항 비율 분석은 교과내용학(국악이론)의 영역만이 아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서양이론)영역이 통합되어진 문항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악 문항 총 비율(배점)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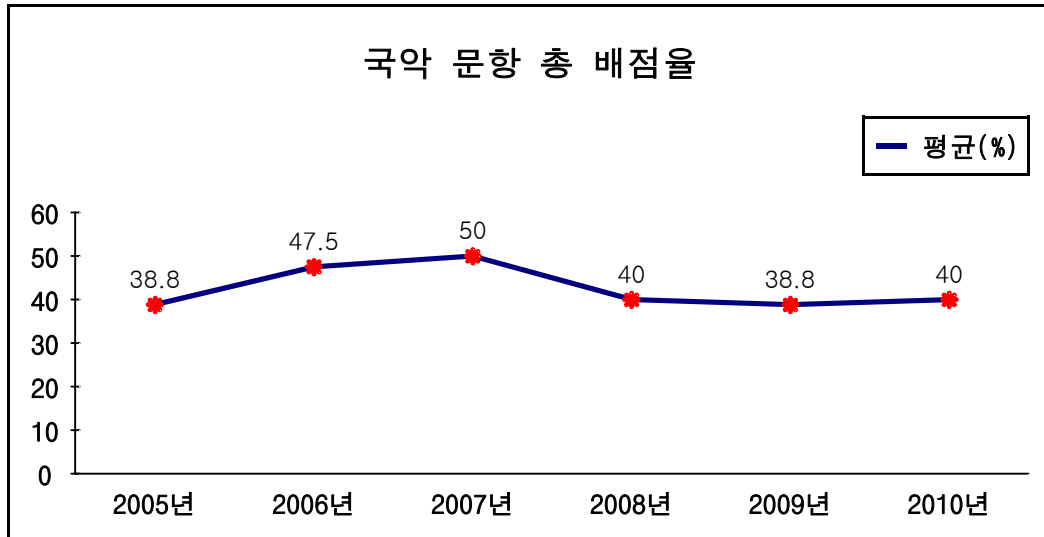
<표 IV-2> 국악 문항 비율(배점) 분석

연도	국악 문항	문항 수	배점	비율(%)
2005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10	31	38.8
	국악 통합문항	-	-	
합 계		10	31	
2006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8	26	47.5
	국악 통합문항	4	12	
합 계		12	38	
2007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8	28	50
	국악 통합문항	4	12	
합 계		12	40	
2008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7	27	40
	국악 통합문항	1	5	
합 계		8	32	
2009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13	26.5	38.8
	국악 통합문항	2	4.5	
합 계		15	31	
2010년	교과교육학(국악이론)	13	24	40
	국악 통합문항	3	6	
합 계		16	32	

연도별 국악 문항은 평균적으로 42.5%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도 국악

문항의 경우, 통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그림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7년도의 경우 50%가 통합된 국악 문항으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었다.

<그림 1> 연도별 국악 문항 비율(배점) 분석



2. 연도별 국악 문항 유형 분석

국악 문항 유형 분석에 있어서는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에 의해 분석하였다.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의 지적인 지식의 수준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단계의 기준으로 분석되어지나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문항은 대부분 지식, 이해, 적용단계까지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분석, 종합, 평가의 고등정신기능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정과²⁹⁾, 사회과³⁰⁾에서 임용 분석 자료로 쓰였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단순지

식 또는 기억’,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 을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 연도별 국악 문항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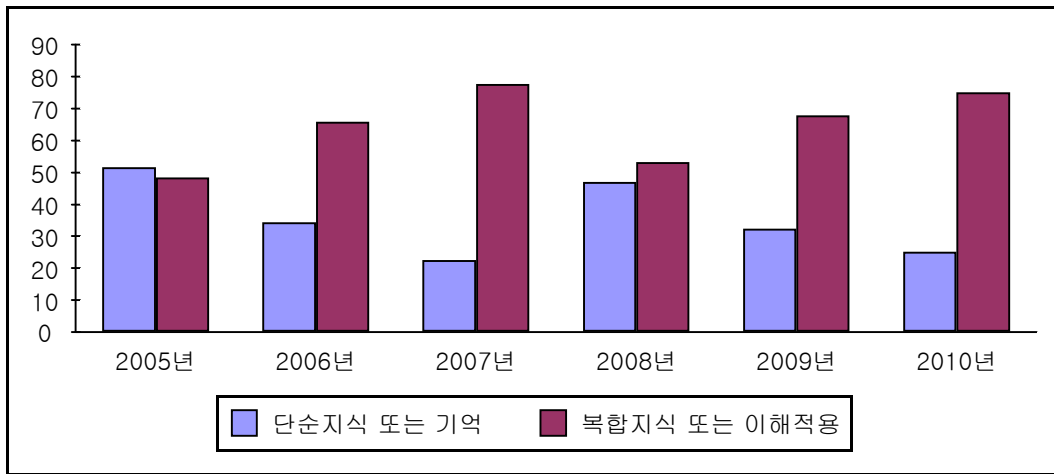
행동영역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문항 수 (배점)	비율 (%)	문항 수 (배점)	비율 (%)	문항 수 (배점)	비율 (%)	문항 수 (배점)	비율 (%)	문항 수 (배점)	비율 (%)	문항 수 (배점)	비율 (%)
단순지식 또는 기억	5 (16)	51.6	4 (13)	34.2	3 (9)	22.5	4 (15)	46.9	5 (10)	32.3	4 (8)	25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	5 (15)	48.4	8 (25)	65.8	9 (31)	77.5	4 (17)	53.1	10 (21)	67.8	12 (24)	75
합계	10 (31)	100	12 (38)	100	12 (40)	100	8 (32)	100	15 (31)	100	16 (32)	100

국악 문항 유형은 단순지식 또는 기억에 의한 문항이 전체 36.2%를 차지하였고,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은 63.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그림 7>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출 횟수가 거듭될수록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여 문항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복합적이며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이 꾸준히 증가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며,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관 되어진 문항 유형은 계속 발전하여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29) 김성숙.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p.35.

30) 양현서. 중등 일반 사회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 「교원교육」, 20(1), 2007. pp.86-97.

<그림 2> 연도별 국악 문항 유형 분석



3. 연도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국악 문항 내용 분석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된 음악과 임용고사 국악 문항 내용을 세부항목 및 내용별요소로 국악 문항 분석기준³¹⁾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IV-4>는 2005년~2010년도까지의 각각의 국악 문항 당 어떠한 내용을 포함한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어느 한 영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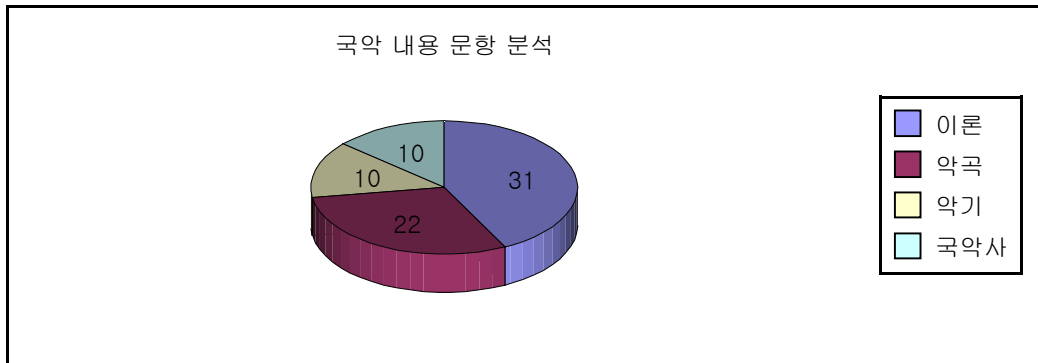
<표 IV-4> 연도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국악 영역 구분	국악 문항 내용	문항 수
이론	악진	18
	장단	16
	형식	7
합 계		31
악곡	민속악	11

31) 국악 문항 분석기준에 관한 내용은 pp.21~25 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의식음악	5
	가악	4
	아악	2
합 계		22
악기	관악기	3
	혼합	3
	현악기	2
	타악기	2
합 계		10
국악사	조선후기	3
	역대국악인	2
	삼국시대	1
	고려시대	1
	근·현대	1
	시대별음악사	1
	창작국악	1
합 계		10

<그림 3> 연도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2005년~2010년까지의 국악 문항 내용으로는 악곡(의식음악 : 종묘·문묘 제례악, 민속악 : 판소리, 잡가, 산조, 민요, 가악 : 가곡, 시조, 아악 : 영산회상) 국악사(조선시대, 고려시대, 근·현대, 역대국악인, 시대별 국악사), 이론(선법과 음계, 시김새, 기보법 : 오음약보, 정간보, 음조직, 장단 : 정악, 민속

악장단, 형식 : 긴·자진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연음형식, 환두·환입형식), 마지막으로 악기(관·현·타악기, 혼합)의 영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론 영역은 31문항, 악곡 영역은 22문항, 악기 영역과 국악사 영역은 각각 10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를 통하여 영역 별로 균형 있게 출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국악 문항의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도

<표 IV-5 2005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7	악곡	민속악	판소리
8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9	악기	혼합	혼합
10	국악사	조선후기	조선후기
11	악곡	가악	가곡
12	이론	장단	민속악
13	악곡	아악	영산회상
14	이론	악전	기보법
15	이론	형식	긴·자진형식
16	국악사	창작국악	창작국악공연

2005년도는 총 25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국악 문항은 10문항이 출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악곡(민속악, 가악, 아악)과 관련된 문항 3문항, 이론 4문항(선법과 음계 1문항, 기보법 1문항, 장단 1문항, 형식 1문항), 악기 1문항, 국악사 2문항이 출제되었다. 2005년도의 경우 통합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16번 창작국악공연의 특징을 묻는 문항은 단순히 단편적

인 문항에서 벗어나 창의성이 요구되어지는 문항이다.

2) 2006년도

<표 IV-6 2006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1	악곡	민속악	민요
6	악곡	민속악	판소리
9	악기	타악기	타악기
10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11	악곡	민속악	판소리
12	악곡	민속악	민요
13	악곡	민속악	민요
14	이론	장단	민속악
15	악기	혼합	혼합
16	이론	악전	음조직
17	악기	관악기	혼합
21	악곡	민속악	민요

2006년도는 총 25문항 중 국악 문항은 12문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악기 2문항, 이론 4문항(음조직 1문항, 선법과 음계 1문항, 장단 1문항), 악곡(민속악) 6문항을 차지하였으며, 악곡(민속악) 문항이 가장 높게 출제되었다. 음조직과 관련된 영역은 2005년도를 분석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도에 처음 출제된 문항이다.

3) 2007년도

<표 IV-7 2007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1	악곡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2	악곡	민속악	관소리
3	이론	장단	정악
5	악곡	민속악	산조
9	악곡	의식음악	종 · 문묘 제례악 혼합
10	이론	악전	기보법
11	이론	악전	시김새
12	악곡	민속악	잡가
15	이론	악전	시김새
16	이론	형식	긴 · 자진형식
17	국악사	고려시대	당악정재
18	이론	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2007년도의 경우 25문항 중 12문항이 국악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2005년~201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7년도는 국악 문항이 12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연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론 6문항(기보법 1문항, 시김새 2문항, 장단 1문항, 형식 2문항), 악곡(의식음악, 민속악, 가악) 5문항, 국악사 1문항으로 국악이론과 통합된 문항 중 교과교육학 4문항이 모두 악곡과 관련되었으며, 출제 문항의 배치 순서에 있어서 국악 문항이 3번 문항에 출제되어 다른 연도와 차이를 보인다.

4) 2008년도

<표 IV-8 2008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7	이론	악전	시김새
8	이론	형식	연음형식

9	악기	타악기	편경
10	이론	장단	민속악
11	이론	형식	환두 · 환입형식
12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13	국악사	혼합	신라, 통일신라
14	이론	악전	음조직

2008년도의 음악과 임용고사 출제 문항 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문항 수 중 가장 적은 20문항만이 출제되었으며, 국악 문항은 8문항이 출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론 6문항(시김새 1문항, 음조직 1문항, 선법과 음계 1문항, 장단 1문항, 형식 2문항), 국악사 1문항, 악기 1문항으로 가장 높은 영역을 차지한 것은 이론 영역 중 형식 문항이다.

5) 2009년도

<표 IV-9 2009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7	악기	관악기	단소
10	악곡	민속악	민요
13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23	악곡	민속악	잡가
25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28	이론	악전	기보법
29	악곡	가악	가곡
30	이론	악전	음조직
31	악곡	아악	혼합
32	악기	혼합	혼합
33	국악사	조선후기	보허자

34	이론	장단	장악
35	악기	현악기	가야금
39	국악사	근 · 현대	일제강점기
40	국악사	역대국악인	신재효

국악 문항은 교과교육학에서 2문항이 포함되어 총 15문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악곡(민속악, 가악, 아악) 4문항, 악기 3문항, 국악사 3문항, 이론 5문항(기보법 1문항, 선법과 음계 2문항, 음조직 1문항, 장단 1문항)이 출제되었다. 2009년도의 국악사 영역과 관련된 문항은 처음으로 조선후기 국악인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악기 영역에서는 가야금 조율 법을 묻는 문항이 처음 출제되었다. 2009년도의 경우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난 만큼 각 문항 당 비율(배점)은 낮아진 반면, 기존의 출제되었던 내용별 요소가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되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2010년도

<표 IV-10 2010년 국악 문항 내용 분석>

문항	영역 구분	세부항목	내용별 요소
3	악곡	가악	시조
6	악곡	민속악	민요
10	악곡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18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29	이론	기보법	오음약보
30	이론	형식	혼합
31	이론	악전	선법과 음계
32	이론	장단	민속악
33	악곡	의식음악	종묘제례악

34	국악사	조선후기	조선후기 음악
35	악기	현악기	거문고
36	악기	관악기	소금
37	국악사	역대국악사	혼합
38	이론	악전	시김새
39	이론	장단	정악
40	악기	혼합	혼합

2010년도는 교과교육학 영역에서 3문항이 국악이론과 통합된 형태로 출제되어 16문항이 국악 문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악곡(의식음악, 민속악, 가악) 4문항, 이론 7문항(선법과 음계 2문항, 시김새 1문항, 기보법 1문항, 장단 2문항, 형식 1문항), 국악사 2문항, 악기 3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이론과 관련된 문항이 가장 높게 출제되었다.

4. 연도별 국악 문항 세부항목 분석

앞서 분석한 국악 문항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출제 문항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1> 2005년도~2010년도 임용고사 국악 문항 세부항목 분석

세부항목		연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론	악전	음조직		1		1	1		3
		기보법	1		1		1	1	4
		선법·음계	1	1		1	2	2	7
		시김새			2	1		1	4
	형식	긴·자진형식	1		1				2
		한배에따른 형식			1				1
		연음형식				1			1

	장단	환두·환입 형식				1			1
		혼합형식						1	1
		민속악장단	1	1		1		1	4
		정악장단			1		1	1	3
악기 연주 법		현악기					1	1	2
		관악기		1			1	1	3
		타악기		1		1			2
		혼합	1				1	1	3
악 곡	의식 음악	종묘제례악		1	1			1	3
		종묘·문묘 제례악 혼합			1			1	2
	아악	영산회상	1						1
		혼합					1		1
	가악	가곡	1				1		2
		시조			1			1	2
	민속 악	판소리	1	2	1				4
		잡가					1		1
		산조			1				1
민요			3			1	1	5	
국 악 사	삼국 시대	신라				1			1
	고려 시대	당악			1				1
	조선 후기	궁중음악 변화	1						1
		보허자					1		1
		혼합						1	1
	근 현대	일제강점기					1		1
	역대 국악 인	혼합					1	1	2
	시대 별 국악 사	혼합		1					1
창작 국악	혼합	1						1	

국악 문항의 세부항목 내용은 최근으로 올수록 실제 수업 현장과 연계되어 통합되고 세밀한 문항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악곡의 문항일지라도, 2005년도에는 단순히 기본개념을 묻는 문항이 출제된 반면, 2010년도 최근 출제 문항은 실제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방법과 통합되어 출제되고 있었다. 위의 제시한 개괄적인 문항 분석을 토대로, 국악 문항 분석기준 틀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론

이론에는 악전(음조직, 기보법, 선법과 음계, 시김새), 형식, 장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악전

가) 음조직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2006	3	삼분손익법의 ‘삼분손일’ 과 ‘삼분익일’ 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㉔에 제시된 방법으로 율을 구하여 그 이름을 각각 쓰시오.
2008	4	다음은 조선 초기 근천정의 악보이다. 아래 오선보의 음들을 둘째 음부터 정간보에 율명으로 옮겨 적으시오.
2009	2	‘문묘제례악’ 중 ‘대려궁’ 의 음악으로 바른 것은?

음조직과 관련된 문항은 2006년, 2008년, 2009년도 3회 출제되었다. 2006년도의 경우, 한 문항 안에서 두 가지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은 다양한 지식과 정확한 이해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문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답에 대한 세밀한 채점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점 기준을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나) 기보법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정간보	2005	3	다음은 단소로 연주한 가락을 오선보로 그린 것이다. 이를 한자 율명의 정간보로 역보 하시오.
	2007	3	다음은 수룡음의 악보이다. ㉠의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쓰고, ㉡의 선율을 정간보에 율명(한자)으로 옮기시오.
	2009	2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기보법으로 옳은 것은? 이 기보법은 악학궤범의 편찬자인 성현이 만든 것으로 왼손가락 이름, 줄, 이름, 꺾의 순서, 탄법 등을 하나로 합쳐 표기한 것이다. 이 기보법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정간보와 병기하기도 했다. 당대의 풍류객들이 거문고를 쉽게 배우고 연주하는 데 활용했던 기보법이다.
오음악보	2010	2	제시된 악보는 오음악보로 기보된 ‘한림별곡’의 일부이다. 이 악보를 임종궁 계면조로 바르게 옮긴 것은?

기보법과 관련된 문항은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도로 4회 출제되었다. 기보법의 종류에는 정간보, 율자보, 오음악보, 연음표, 육보, 공척보, 합자보, 약자보로 종류가 다양하나 출제 문항은 정간보와 오음악보의 두 종류의 기보법만이 편중되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선법과 음계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2005	3	임종평조의 음계를 다음 오선보에 조표를 사용하여 그리고, 각 음의 율명을 한자로 쓰시오.
2006	3	(가)의 황종평조 곡을 황종계면조로 바꾸어 (나)의 정간보에 옮겨 쓰시오.
2008	5	향악에는 평조와 계면조의 2가지가 있다. (가)는 임종을 주음으로 하는 평조 또는 계면조 중 어떤 조인가를 쓰시오. 그리고

		(가)가 평조일 경우에는 계면조로, 계면조일 경우에는 평조로조를 바꾸어 (나)의 ①~④에 알맞은 율명을 쓰시오.
2009	2.5	제시된 악보는 판소리 대목들이다. (가)~(라)에 사용된 악조 또는 성음이 바르게 묶인 것은?
2009	1.5	‘민요 음계와 시김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락 짓기를 하려고 한다. 주어진 동부민요조의 가락에 이어지는 가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	2	제시된 민요의 음계와 장단을 활용하여 가락 짓기를 하려고 한다. <보기>의 주어진 가락에 이어지는 가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	1.5	제시된 악곡의 기음은 <악학궤범>에 소개된 7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선법과 음계와 관련된 문항은 2009년 2문항,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에는 각각 한 문항씩 총 6회 출제 되었다. 또한 선법과 음계에 관련된 내용은 평조, 계면조에 관련하여 2005년, 2006년, 2008년에 출제되었으나,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새롭게 악조와 관련하여 심화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라) 시김새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2007	4	다음은 새타령의 악보이다. 악보 ㉠에 ‘떠는 음’과 ‘꺾는 음’을 찾아 <보기>와 같이 직접 표시하고, 밑줄 친 가사에 알맞은 가락을 악보 ㉡에 그려 넣으시오.
2007	2	아래의 “(淋)”의 장식음을 풀어서 정간보 빈칸에 그려 넣고, “(淋)”를 단소로 연주할 때 막아야 하는 지공을 0에 검게 표시하시오.
2008 ³²⁾	5	다음 곡을 단소로 연주하려 한다. 정간보의 괄호 안에 부호로 표시된 시김새를 오선보에 옮기시오, 그리고 전통음악에서 시김새의 음악적 효과를 지도하는 방법 2가지를 쓰시오.
2010	2.5	제시된 악곡을 노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2) 밑줄로 표시된 연도는 교과내용학(국악이론)의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서양이론)의 통합된 문항

시김새와 관련된 문항은 2007년도에 2회 출제되었고, 2008년도에는 새롭게 교과교육학과 통합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시김새는 단독으로 개념을 묻는 문항이 아닌, 악곡과 통합되거나 단소의 시김새 지도 방법을 연계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시김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문항을 풀 수 있었다.

2) 형식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긴·자진 형식	2005	3	긴·자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요의 이름을 3가지만 쓰시오.
	2007	4	다음 악곡의 장단명과 이 악곡을 긴-자진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 명을 쓰고, 주어진 선율을 긴-자진 형식에 알맞게 리듬(장단꼴)만 변형하여 악보에 그리시오.
한배에 따른 형식	2007	4	다음 악곡을 느린 한배에서 빠른 한배 순으로 표시하되, 해당 기호와 악곡명을 쓰고, ㉠의 장단을 정간보에 부호로 그려 넣으시오.
연음형식	2008	3	전통음악 곡 중 연음형식으로 된 곡명을 2개 적고, 연음형식의 특징을 2줄 이내로 쓰시오.
환두 환입형식	2008	4	전통음악 ‘천년만세’를 구성하는 3곡의 이름을 쓰고, 이 곡들에 나타나는 형식상의 공통적 특징을 쓰시오.
혼합형식	2010	2	국악 곡 형식에 대한 설명과 해당 악곡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05년~2010년도까지의 형식 관련 문항은 총 6문항이며, 긴·자진형식이 2회 출제되었고, 한배에 따른 형식, 연음형식, 환두·환입형식, 혼합형식이 각각 한번 씩 출제되었다. 그 밖의 확대형식, 엮음형식, 메기고받는형식, 모음곡형식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에 출제된 긴·자진형식 문항은 개

을 뜻한다.

념을 묻는 비교적 암기에 의해 풀 수 있는 쉬운 문항이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변형 장단을 직접 기보하는 문항으로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3) 장단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민속악장단	2005	3	다음은 가야금 산조 각 장단의 첫 부분이다. 해당되는 장단의 이름을 쓰시오.
	2006	4	각 악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단을 <보기>에서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2008	3	다음의 민요에 어울리는 장구 장단의 이름을 쓰고, 그 장단을 정간보 및 리듬악보로 나타내시오.
	2010	2	제시된 악보는 가야금 산조의 일부이다. 장구 반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악장단	2007	4	아래 표의㉠과㉡에 들어갈 악기명과 연주형태를 쓰고, 밑줄 친 악기의 음역과 삼현영산회상에 사용되는 장구의 채편 연주법을 쓰시오.
	2009	2	악곡과 장단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2010	2	제시된 악곡의 장구 반주 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12박 장단과 4박 장단을 이어서 반주한다. ㄴ. 제 1박, 제12박은 쌍으로 반주한다. ㄷ. 제 5박, 제 14박은 고로 반주한다. ㄹ. 제 6박, 제 7박, 제 11박, 제 16박은 요로 반주한다. ㅁ. 장구 채편의 변죽을 쳐서 반주한다.

장단은 민속악장단, 정악장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악장단에 비해 민속악장단의 출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출제된 가야금 산조를 묻는 문항은 2010년도에도 반복 출제되어 기본적인 장단 명을 묻는 문항에서 가야금 산조의 반주 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심화되어 출제되었다. 따라서 같은 악곡일지라도 회를 거듭할수록 문항의 유형과 내용이 심화되고

세밀한 부분까지 출제되고 있었다.

나. 악기

악기의 분류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누었으며, 혼합영역에는 현·관·타악기를 혼합하여 출제된 문항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현악기	2009	2	(가), (나)의 조건에 따라 ㉠ 에 들어갈 가야금 개방현의 조율 음으로 알맞은 것은?
	2010	2	제시된 악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관악기	2006	3	A 교사는 합주 시간에 관악기의 소리 내는 방식과 관의 모양에 따른 음색의 차이를 설명하여 악기연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경우에 해당하는 악기(국악기 또는 서양악기)를 1개씩 쓰시오.
	2009	2	단소를 지도하려고 할 때, 교수-학습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아래의 “(㉠)”의 장식음을 풀어서 정간보 빈칸에 그려 넣고, (㉡)을 단소로 연주할 때 막아야 하는 지공을 0에 검게 표시하시오.
	2010	2	<보기>에 제시된 소금의 운지법 중 임종과 청임 중에 해당하는 것은?
타악기	2006	3	다음은 종묘제례악 중 '회문'의 일부이다. 국악기 중에서 다음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율 타악기 3가지만 쓰시오.
	2008	4	다음()안에 알맞은 용어를 답란에 쓰시오. 아래의 악기는 16개의 경을 달아매고 각퇴로 쳐서 소리를 내는 편경이다. 이 악기의 음역은 ‘황중부터 청협중’ 까지인데, 이것을(㉠)이라 부른다. 이 악기는 악학계법에서 분류법인 삼부악기 중 (㉡)악기에 속하고 증현문헌 비교에서는 팔음 중 (㉢)에 속한다. 아

			래의 빈칸에 알맞은 율명은(㉔)이다.(단, 율명은 한자로 쓰시오.)
혼합	2005	4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의 선율적 특징을 쓰고, 각각의 편성악기를 계통에 의한 분류(향악기, 당악기, 아악기)에 따라 쓰시오.
	2009	2	<악학궤범>의 분류 방법에 따라 악기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2010	2	제시된 악기들 중에서 필요한 악기들을 선택·조합하여 연주할 수 없는 악곡은? 단소, 대금, 소금, 생황, 아쟁, 양금, 장구, 좌고, 해금, 가야금, 거문고, 세피리, 향피리

현악기 영역의 경우 2009년도에는 가야금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출제되었고 다음 연도인 2010년도에는 거문고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어 현악기의 종류만 달리한 문항이 연속 2회 출제된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다. 악곡

악곡의 경우 2005년도~2010년도의 출제된 다양한 악곡을 유의미 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의식음악, 아악, 가악, 민속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식음악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종묘 제례악	2006	3	다음은 종묘제례악에서 행해지는 일무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u>2007</u>	3	윤 교사는 ‘종묘제례악’의 감상수업에서 동 시대의 음악 사상을 아는 것이 종묘제례악의 구성 요소인 악장, 일무, 악곡, 악현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례악에 영향을 준 음악 사상을 먼저

			설명하였다. 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한 음악사상은 무엇이며, 제례악의 특성과 음악사상을 알 수 있는 조선 전기의 음악 이론서를 쓰시오.
	2010	2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종묘 문묘 제례악 혼합	2007	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궁중정재인 처용무를 감상 수업하려고 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과 감상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감상 활동을 위한 지도 내용 3가지만 쓰시오.
	2010	2	제시된 풍속화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려고 한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강조한 국악 교수-학습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의식음악과 관련된 내용은 종묘제례악을 묻는 문항, 종묘제례악과 문묘제례악의 혼합된 문항, 교과교육학과 통합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종묘제례악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는 종묘제례악의 일무의 개념을 묻는 단순한 문항에서 2007년도의 경우 교과교육학이 통합된 문항으로 실제 감상 수업과 연계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2) 아악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영산회상	2005	3	영산회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구성 악곡을 다음 표의 빈칸에 쓰시오.
혼합	2009	2	정악의 악곡명, 아명(별명), 악곡 해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악과 관련한 문항은 2005년도에 영산회상을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통합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2009년도에 출제된 문항은 악보만 보기로 제시한 후 장단을 묻는 문항이었다. 이는 제시된 악곡명을 이미 숙지

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장단과 연결시켜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악곡의 중요성이 강조된 문항이었다.

3) 가악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가곡	2005	3	다음은 전통 성악곡의 시작 부분이다. 이 악곡의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 중 6가지를 쓰고, 이 악곡이 몇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쓰시오.
	2009	2	아래 사진의 연주 형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조	2007	4	다음 ‘수잡가’의 악보를 보고, 이 악곡과 시조와의 연관성을 2가지만 쓰시오.
	2010	2	제시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였을 때 평가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악은 가곡과 시조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가사를 묻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도에 출제된 시조를 통한 학습-평가내용 방안을 묻는 문항은 새롭게 평가 영역과 연관된 문항이었다.

4) 민속악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판소리	2005	3	다음은 판소리 5마당 중 한 부분이다. 해당되는 판소리의 제목과, 대목, 장단을 쓰시오.
	2006	3	지난해 A 교사는 음악 감상 수업에서 판소리 고유의 멋을 열심히 설명했으나 학생들의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았다. 올해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 의한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A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구체적 예를 들어 각각 2줄 이내로 쓰시오
	2006	4	‘판소리’와 ‘창극’의 차이점을 4가지만 쓰시오.
	2007	3	심청가 중 ‘범피중류’ 대목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양(중국과 일본)의 극음악과 비교 감상하면서

			가창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가창 활동 중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른다.’와 연관 지어 판소리 악곡의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2가지만 제시하고, 이 수업에 감상 제재 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의 극음악을 쓰시오.
잡가	2009	2.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곡은? 전체 12곡이 전승되고 있다. 비교적 굵고 폭이 넓은 요성을 사용한다. 서도 민요 창법이나 경기민요 창법을 사용한다. 노랫말에 서민들의 직설적 언어표현이 드러난다. 19세기에 발생하여 사계 축 소리꾼들에 의해 널리 불렸다.
산조	<u>2007</u>	3	김 교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야금 산조를 지도하려고 한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이해 영역에서 제시된 요소 중 3가지와 이에 따른 지도 내용을 <예시>와 같이 쓰시오.
민요	<u>2006</u>	4	‘자진강강술래’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창작 영역의 학년별 내용에 근거한 적절한 활동을 4가지만 제시하시오.
	2006	3	다음 악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가)와 (나) 두 악곡은 어느 지방 민요인지 쓰시오. ②(가)와 (나) 두 악곡의 음계를 오선보에 그리시오. ③(가)악곡에 잇대어 부르며, 많은 가사를 넣어 조금 빠르게 부르는 민요의 제목을 쓰시오.
	<u>2006</u>	2	‘강원도 아리랑’의 장단 느낌을 그대로 살린 합창곡을 연주할 때, 어떻게 지휘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가장 적절한지 네모 안에 지휘도형을 그리고, 해당 박자의 분할을 반드시 숫자로 쓰시오.
	<u>2009</u>	2.5	다음 민요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u>2010</u>	2	제시된 곡을 ‘8학년’ 음악 시간에 가르치려고 한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지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학습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민속악이 출제된 세부적 영역은 판소리, 잡가, 산조, 민요 중심으로 출제 되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교과교육학 영역과의 통합 문항 비중이 높았다.

라. 국악사

국악사의 분석기준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후기, 근·현대로 나누었으며, 시대별 국악사와 역대국악인, 창작국악의 영역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내용 분류	출제연도	배점	출제 문항
삼국시대 (신라)	2008	4	아래의 <보기>에서 신라의 향악곡 4개를 골라 그 번호를 쓰시오.
고려시대	2007	3	다음은 어느 시대의 음악을 설명한 것인지 쓰고, 이 시대에 유입된 당악 정재 중 2가지만 쓰시오.
조선후기	2005	3	조선후기(임진왜란 이후~서양음악 유입 이전)음악의 경향을 4가지만 쓰시오.
	2009	2	조선 후기 '보허자'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	2	조선 후기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현대	2009	2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음악사 적 사실이 아닌 것은?
시대별 국악사	2006	3	다음 악곡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 번호를 쓰시오.
역대 국악인	2009	2	인물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0	2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조선 후기 비가비광대인 이 사람은 광대들에 의해 구비 전승된 판소리 여섯 마당의 사설을 기록으로 남겼고, 경복궁 낙성식 때 여 제자 진채선으로 하여

			금 대원군 앞에서 단가를 부르게 하였다. ‘허두가’, ‘고고천변’, ‘효도가’ 등의 단가를 창작하였고, 광대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창작 국악	2005	3	전통국악공연과 구별되는 오늘날 창작국악공연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국악사와 관련된 문항 중에는 조선후기를 묻는 문항이 3회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2005년도의 조선후기 문항은 시대적 상황을 묻는 문항이었던 것에 반해, 2009년도에는 조선후기의 인물을 묻는 문항, 2010년도는 조선후기 악곡을 묻는 문항으로 점차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었다. 또한 2005년도의 경우 창작국악과 관련하여 창작국악 공연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 처음 출제되었으며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항이었다.

5. 연도별 국악 곡 교과서 및 국악 서적 출처 분석

임용고사는 지적 능력과 정의적 사고를 두루 갖춘 자를 선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문항의 유형은 다양하게 출제 되고 있다. 임용고사에서 출제되는 악곡은 점차 악보만을 제시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5지선다 선택형 문항으로 바뀜에 따라 5지선다 문제에 악보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악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문항을 풀 수 있는 점차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악곡의 분석은 국악의 경향성 파악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임용고사에 출제된 악보를 중심으로 교과서와 국악 서적 내용의 국악 곡 출처 분석을 통해 국악 경향성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와 차별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출제 문항의 악곡은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악 서적을 통해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국악 서적의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며 국악 곡 악보 출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7	3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세광출판사 p.121 	*전통음악이론 p.331
11	3	가곡(시조) 中 우조초수대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 교학연구사 p.38 * 세광출판사 p.62 * 두산 p.16 * 성안당 p. 14 • 고등학교 * 대한교과서 p.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기쉬운 국악개론 p.139 *국악통론 p.166
17	3	박상근 류 가야금 산조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음악이론 p.251 *국악총론 pp.504~510 *한국음악개론 pp.132~134 *한민족음악론 p.182

2005년도 출제 문항의 악곡 출처 분석 결과, 가야금 산조의 악보는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박상근류³³⁾가 출제되었다. 교과서에는 김죽파류와 최옥상류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악 서적에는 출제 문항의 악보인 박상근류의 가야금 산조 악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의 국악 서적을 통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33) 국악 서적 중 「한민족음악론」에서는 박상근류의 가야금산조 전체 악보가 유일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부록>에서 유일하게 제시된 박상근류 가야금 산조악보를 참고로 수록하였다.

2) 2006년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13	3	(가) 수심가 (나) 배따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3학년 * 천재교육 p.48 • 고등학교 * 태성 p.164 * 천재교육 p.100 * 두산 p.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이론 p.113 *전통음악이론 p.277
14	4	㉠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 판소리 심청가 中 범피중류 ㉢ 단가-진국명산 ㉣ 남도민요- 자진농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 * 지학사 p.46 * 태성 p.24 • 중학교 2학년 * 두산 p.34 * 세광 p.22 * 성안당 p.43(참고곡) * 지학사 p.46 • 중학교 3학년 * 아침나라 p.12 * 동진 p.30 * 성안당 p.14 * 두산 p.17 * 아침나라 p.38 * 교학연구사 p.63 * 두산 p.121 • 고등학교 * 현대 p.118 * 태성 p.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기쉬운 국악개론 p.166 *음악이론 p.105
15	3	① 19c 말 산조 中 강태홍류 ② 15c 조선시대- 여민락 ③ 20c 황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 교학연구사 p.13 * 세광출판사 p.62 * 성안당 p.14 • 중학교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총론 p.507 *알기쉬운 국악개론 p.112, 139 *국악통론 p.116 (정간보 악보)

		침향무 ④ 17~18c 가곡(시조) 中 우조초수대엽	* 태성 p.8 • 고등학교 * 천재교육 p.32 * 세광출판사 p.141 * 대한교과서 p.54 * 세광출판사 p.150	*전통음악이론 p.222
--	--	---------------------------------------	-------------------------------------------------------------------------------------	---------------

2006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악곡은 민속악과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황병기의 침향무의 곡은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국악 서적에서는 침향무에 관한 악곡을 찾을 수 없었다.

3) 2007년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10	3	수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2학년 * 두산 p.58 • 고등학교 * 현대 p.162 	*알기쉬운 국악개론 p.141(피리악보)
12	4	수잡가	x	*국악총론 p.494
15	4	새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 * 교학연구사 p.56 • 중학교 2학년 * 세광출판사 p.58 * 동진 p.14 • 중학교 3학년 * 천재교육 p.18 * 두산 p.68(참고곡) • 고등학교 * 박영사 p.58 	x
18	4	㉠ 세령산 ㉡ 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3학년 * 태성 p.28 	*국악총론 p.176

		Ⓣ 상령산	* 지학사 p.66	
--	--	-------	------------	--

2007년도 출제 문항 중 수룡음 악곡은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어 있으나, 국악 서적에서는 피리악보³⁴⁾로 제시한 악보가 「알기쉬운 국악개론」 한 권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다.

4) 2008년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10	3	봉산 풍구 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 태성 p.55 * 천재교육 p.133 (참고곡) 	x

2008년도에는 봉산 풍구타령의 한 곡만 유일하게 악보로 제시 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 태성, 천재교육의 두 출판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두 교과서의 장단이 각각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으로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점과, 국악 서적에서는 봉산 풍구타령의 악보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5) 2009년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10	2.5	몽금포 타령	• 중학교 3학년	x

34) 출제된 문항은 대금, 생황, 아쟁의 악보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국악 서적에서는 피리 악보만이 유일하게 알기쉬운 국악개론에서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참고로 피리악보를 본 논문 <부록>에 수록하였다.

			* 세광출판사 p. 72	
13	2.5	(가) 춘향가 中 어사상봉대목 (나) 춘향가 中 적성가 (다) 적벽가 中 군사점고 (라) 심청가 中 눈어둔 대목	x	*국악총론 p.501 *한민족음악론 p.174 *전통음악이론 p.309
23	2.5	① 서도잡가- 관산용마 ② 남도민요- 육자배기 ③ 12가사- 죽지사 ④ 12잡가- 평양가 ⑤ 서도민요- 산염불	• 중학교 2학년 * 천재교육 pp.32~33 (정간보) • 고등학교 * 대한 p.63 * 천재 pp.18~19	*알기쉬운 국악개론 p.169, 174 *한민족음악론 p.162
34	2	① 길타령 ② 취타 ③ 편탁 ④ 세령산 ⑤ 밀도드리	• 중학교 2학년 * 태성 p.12	*전통음악이론 p.172, 182, 189 *알기쉬운 국악개론 p.118

2009년도의 경우 5지선다의 보기문제에 악곡이 모두 출제되어 악곡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도에 출제된 몽금포타령 곡은 정간보로 제시되었으며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된 통합된 문항이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오선보로 수록되어 있었으나, 유일하게 중학교 3학년 세광출판사 교과서에 정간보³⁵⁾로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13번 문항의 경우 교과서에서는 악보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국악 서적에서 적성가의 악보만 찾아 볼 수 있었다.

35) 본 논문<부록>에 몽금포타령의 정간보 악보를 참고로 수록하였다.

6) 2010년

문항	배점	악곡명	출처	
			교과서	국악 서적
6	2	남도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 * 동진 pp.52~53 * 천재교육 pp.44~45 • 중학교 2학년 * 태성 p. 19 * 아침나라 pp.22~23 • 중학교 3학년 * 지학사 p.41(참고곡) 	x
31	1.5	수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 * 태성 p.35 * 교학연구사 p.70 • 고등학교 * 태성 p.154 * 천재교육 p.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민족음악론 p.237 (정간보) *전통음악이론 p.149 *국악통론(피리보) p.127
32	2	박상근 류 가야금산조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음악이론 p.251 *국악총론 pp.504~510 *한국음악개론 pp.132~134 *한민족음악론 p.182
38	2.5	(가) 수궁가- 토끼가 자라에게 욕하는 대목 (나) 흥보가- 박타령 (다) 시조- 사설시조 (라) 여창 가곡- 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1학년 * 두산 p.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기쉬운 국악개론 p.139

2010년도는 5지선다 문제에 모두 악곡이 실려 있었으며, 2005년도에 출제

되었던 박상근류의 가야금산조가 반복하여 출제되었다. 2005년도는 장단 명을 묻는 문항이 출제된 반면, 2010년도의 경우 장구 반주를 묻는 문항으로 구체적이고 심화된 문항이 출제되었다. 또한 꽤지나 칭칭나네의 곡은 교과서에는 실려 있으나 국악 서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국악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과내용뿐만 아니라, 임용고사를 통하여 국악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악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용고사의 국악 문항 분석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며,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좀 더 밀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국악이론에 초점을 두어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음악과 임용고사 배점이 80점으로 전환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악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태 조사하고, 교과서와 국악 서적간의 악곡 출처를 밝힘으로써 국악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에 걸맞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연도별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의 분석 결과, 교과교육학 영역은 평균적으로 31.5%, 교과내용학 영역은 68.6%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전 공고한 교과교육학 영역 30%~35%, 교과내용학 영역 65~70%의 출제 비율을 유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악 문항 비율(배점)을 보면, 38.8%~50%가 국악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2007년도의 경우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42.5%로 이루어져 있었다.

셋째, 블룸의 인지적 영역 교육목표 분류에 의해 분석한 국악 문항 유형의 결과는 단순지식 또는 기억을 묻는 문항이 평균 36.2%를 차지하였고, 복

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은 63.8%로 나타났다. 점차적으로 출제문항이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2005년~2010년까지의 국악 문항 내용으로는 이론 영역 중 이론(선법과 음계, 시김새, 기보법 : 오음약보, 정간보, 음조직, 형식 : 긴·자진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연음형식, 환두·환입형식, 장단 : 정악, 민속악장단), 악기(관·현·타악기, 혼합), 악곡(의식음악 : 종묘·문묘제례악, 민속악 : 판소리, 잡가, 산조, 민요, 가악 : 가곡, 시조, 아악 : 영산회상), 국악사(삼국, 고려, 조선후기, 역대국악인, 시대별음악사, 근·현대, 창작음악)의 영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론 영역은 31문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국악사와 악기는 10문항씩 출제되어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국악 문항의 세부적인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실제 현장 중심의 수업과 연계된 문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악곡의 문항일지라도 2005년도에는 단순히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이 출제된 반면, 최근 출제된 2010년도의 문항은 실제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방법과 통합되어 출제되고 있었다.

여섯째, 출제 문항의 악곡 출처 분석 결과,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국악 전문서적에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악 전문서적의 광범위한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 간 문항 비율(배점)은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 공고한 출제 비율을 유지하며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 문항 비율(배점)은 계속적으로 국악이론 영역 비율이 서양이론

영역의 비율과 동등하게 출제되어 국악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국악 문항 유형이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으로 점차 확대 된 것은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며, 단순지식 또는 기억을 묻는 문항은 지향하고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관 되어진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 문항 유형은 계속 발전하여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악 문항의 출제 내용은 ‘이론’ 영역에 비하여 ‘국악사’, ‘악기’ 영역은 적은 빈도수를 차지하여 영역 별로 균형 있게 출제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 영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포되어 다양한 영역을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악 문항이 최근 들어 실제 수업과 연계되어 통합된 문항 출제는 새로운 교육적 흐름에 맞추어 문항 출제 유형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용성 있는 문항을 계속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출제 문항 악곡의 교과서 및 국악 서적 출처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과서와 국악 서적의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변별력 있는 문항 출제는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및 후속 연구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6년간의 음악과 임용고사 국악 문항 분석을 통한 국악의 경향성은 출제연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통합적인 문항 형태와 복합지식 또는 이해적용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세밀하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출제되었으며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악 전문서적의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어야지 문항을 풀 수 있도록 보다 변별력 있고 심도 있는 문항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과 임용고사의 전반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한 영역에만 편중되어 출제되지 않도록 출제 분포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하위 영역 간 문항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한 영역만 출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음악 교과는 심미적 경험과 실음 중심의 평가가 강조되고 있으므로, 임용고사 문항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역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용고사 출제 범위는 주로 이해영역과 관련되어 출제 되었으므로 활동영역과 새롭게 추가되는 생활화영역의 내용을 추가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의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창작 영역과 악보 위주가 아닌 실음 위주의 듣기 평가 문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원 임용고사는 지적 능력과 정의적 사고를 두루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영역 간 서로 통합된 문항유형과 복합지식과 이해적용을 묻는 변별력 있는 문항, 그리고 실제 수업 현장과 연계성이 있는 실용성 있는 문항은 계속 출제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실시된 중등 음악과 임용고사 1차 시험 국악 문항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악 문항뿐만 아니라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서양이론)의 미시적 접근이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어지고 있는 2차 논술시험에 관한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 측

면으로 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임용고사에 합격한 음악교사의 인터뷰를 통하여 임용을 통해 평가받은 자질 및 능력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절히 부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내용 타당도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임용고사 출제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전문가와의 안면 타당도를 통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보다 현실성 있고 적합한 문항으로 출제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임용고사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신축성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문제점을 찾아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전문가로서의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단행본

권오성. 「한민족음악론」. 서울 : 학문사. 1999.

김기태 ·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3.

김춘미 외. 「고등학교 음악사」. 서울 : 교학사. 2008.

반혜성. 「전통음악이론」. 서울 : 도서출판 두남. 1999.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 태림출판사. 2007.

손태룡. 「증보 한국음악개론」. 서울 : 민속원. 2000.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서울 : 일조각. 2007.

송혜진.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서울 : 도서출판 다른세상. 2002.

신현남 외. 「고등학교 음악이론」. 서울 : 교학사. 2008.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 도서출판 풍남. 2008.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5.

2. 국내 학술지

권덕원. “국악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연구」. 제 30권. 2006.

변미혜. “개정시기별 교육과정과 국악교육의 변화”. 「음악교육연구」. 제 21권. 2006.

석문주. “2000년을 향한 중등 음악교사 교육프로그램”. 「음악과 민족」. 제 9호. 1995.

양현서. “중등 일반 사회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 「교원교육」. 제20권. 2004.

3. 국내 학위 논문

김성숙.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가정과 교과교육학 문항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김영주. 중등 음악교원 임용고사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김 욱.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음악)의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2006.

김진아. 중등 음악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문항분석 연구. 강원대

학교 교육대학원. 2008.

남수진.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국악교육과정의 실태 :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백정연. 중등교원 음악과 임용고사 분석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손 욱. 음악과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이은실. 중등교원을 위한 음악과 임용고사 문항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홍정아. 음악과 임용고사 출제 경향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4.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5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2006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2007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2008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2009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2010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5. 중 · 고등학교 교과서

1) 중학교 교과서

- 조창제. 교학연구사. 2008.
고춘선 · 홍종건.. 세광음악출판사. 2008.
최필립 외. 성안당. 2008.
윤경미 · 문진. (주) 아침나라. 2008.
윤명원 · 김영희. (주) 지학사. 2008.
백병동 외. (주) 천재교육. 2008.
이홍수 외. (주) 두산. 2008.
김준수 · 이동훈. 동진음악출판사. 2008.
서한범 외. 도서출판 태성. 2008.

2) 고등학교 교과서

- 고춘선 · 홍종건. 세광음악출판사. 2008.
이홍수 외. (주) 두산. 2008.
김성수 외. (주) 대한교과서. 2008.
서한범 외. (주) 태성. 2008.
윤경미 · 문진. 현대음악출판사. 2008.
정영택 · 허화병. (주) 교학사. 2008.
백병동 외. (주) 천재교육. 2008.
이강울 외. (주) 박영사. 2008.

6. 인터넷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한국검정교과서. <http://www.ktbook.com/>

각 시·도별 교육청별 사이트.

ABSTRACT

Analysis of National Examination for music teachers

Jae Yeon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the status of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by analyzing its use in test items in the national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from 2005 to 2010. The number of test items featuring excerpts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appearing each year was analyzed, and the sources of these excerpts were indexed, with the goal of proposing improvements to such test ite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oposal for reform are presented.

First, an analysis was performed of the musical styles and time periods that appeared on the examination. Among content that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rior to the examination, 30 % to 35% of the test items in the music education actually appeared on the exam, and 65% to 70% of the test items in music actually appeared on the exam.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ctual exam is relatively consistent with the content announced beforehand, a positive trend that should continue.

Second, the proportion of test item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music ranged from 38.8% to 50%, or an average of 42.5%. It is essential that the bal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ory and Western music theory appear in equal proportion, as to adequate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former.

Third, test item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were analyzed according to Bloom's Taxonomy, revealing that the number of items that focused on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is gradually increased from 2005 to 2010. The ability to comprehensively evaluate several kinds of information is an important skill. Rather than test items that require basic knowledge or memory, it is important that items focusing on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based on true understanding of theory, continue to be developed and appear in examinations.

Fourth, it was found that from 2005 to 2010, the proportion of test item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music history and Korean instruments appeared less frequently than item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music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exams not focus too heavily on one area, but assess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a well-rounded manner.

Fifth, it was found that year by year, there was an increasing number of test items related to actual classroom practice. This change is seen as a reflection of new trends in education, and this practice of featuring practical test items with content that can actually be applied in the classroom should continue.

Sixth, the sources of the excerp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from the exam were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pieces were sourced

not only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textbooks, but from other book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 result, teaching candidates are required to acquire a wide range of knowledge to prepare for the exam.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future teachers, the selection of detailed and concrete test items is a practice that should increase.

In order to assure that individuals of the highest quality are selected to be teachers, the National for teachers Exam must be updated to reflect the swift rate of change of modern society. It is important continuously find problems and reform them as quickly as possible, with constant efforts being made to study and develop expertise as educators.

부 록

부록 1. 박상근 류 가야금 산조 악보

<2005, 2010년도 출제, 한민족음악론 p.182>

박상근 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

우조
실음은 약 완전5도 아래임

부록 2. 수롱음 피리보 악보

<2007년도 출제, 알기쉬운 국악개론 p.141>



부록 3. 몽금포타령 정간보 악보

<2010년도 출제, 중학교 3학년 세광출판사 p.72>

無	님	無	에	無	님	無	금	汰	북	汰	장
林	만	汰	례	林	만	汰	일	泮	소	泮	산
林	나	無	요	林	나	無	도	泮	리	泮	곳
汰	보	無	에	汰	보	無	상	泮	나	泮	마
		汰	혜			汰					
無	갓	無	요	無	갓	汰	봉	濼	더	濼	무
林	네	汰	에	林	네	汰	에	泮	니	泮	에
		泮	혜								
無				無				淋		淋	
林		泮	요	林		泮		無		汰	
		汰				汰		汰			
		泮				泮					
△		汰		△		汰		無			
								林			

